

소·부·장 산업 육성 가속... “바이오·미래차 공급망 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부, 관련 공모절차 오늘 개시
지난 2년간 기존 특화단지 5곳서
생산액 26%, 수출액은 47% 상승

“단지별·분야별 맞춤형 지원 강화”
오는 7월 특화단지 선정지역 발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년 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와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관련 공모 절차를 22일 개시해 내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 간 협력 생태계조성과 기술자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화를 위해 추진됐다. 2021년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등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가 첫 지정됐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경기용인(SK하이닉스), 이차전지는 충북청주(LG엔솔),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삼성DS), 탄소

소재는 전북전주(효성첨단소재), 정밀기계는 경남창원(두산공작기계 등)이다.

이들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997억원),

테스트베드 구축(995억원), 기반시설 지원(290억원), 실증센터(2170억원), 펀드(150억원), 전문인력 양성(48억원) 등 약 4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단지공)의 지난해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앵커기업 등 주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난 2년간 전체 특화단지 생산액은 26%, 수출액은 47% 상승했고, 약 5000명의 고용 증가, 261개 기업 집적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5개 특화단지 분야에서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특화단지 추진성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 경쟁력과 단지 경쟁력, 지정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인프라·투자·연구개발·사

업화 등 신규 특화단지 조성을 전폭 지원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소재 공급·생산, 수출경쟁력 지원 등 단지별·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보 등 법령상 지정요건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필요시 현장실사나 발표평가 등도 이뤄진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빅테크, 현지성장 기대감 ↓ 韓·유럽 등 해외시장 눈길

● 차이나 뉴스&리포트

규제 개선 지지부진... 경기침체 겹쳐
알리익스프레스, 韓 1000억 규모 투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는 반면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중국 내에서는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스페인을 기점으로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키로 했으며, 미국에 진출한 핀뒤의 티무는 아마존의 상대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스페인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 서비스’의 출시 행사를 갖고 9일 내 배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위해 스페인행 전세 항공편을 주당 9회로 늘리기로 했다. EU 시장에서는 물류 허브인 벨기

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횟수다. 스페인 내의 상품 픽업 포인트도 현재 5000곳에서 이달 말까지 7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개리톱 유럽 책임자는 “일부 상품에 특화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물류와 무료 반품, 할부결제, 상품 선택 및 품질, 가격 보장 등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국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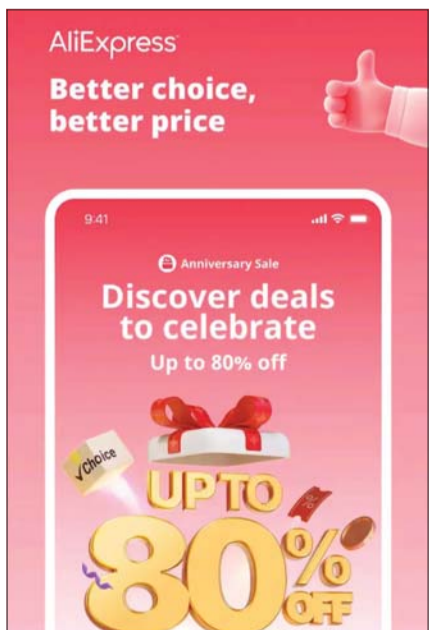
알리익스프레스 레이장 한국 대표는 당시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외직구의 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쇼핑처럼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일일 활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경쟁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핀뒤의 쇼핑 앱인 티무(Temu)는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의 진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티무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는 앱으로 집계됐다. 핀뒤의 공급망을 활용해 중국 제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초저가로 공급하면서 작년 9월 출시된 이후 단기간 내에 급성장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역시 일부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틱톡샵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 화면 캡처.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그룹 | 국민행복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맘은 행복하게

상해질병도 마음건강도 중요하니까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특허청 상표권 획득
(등록번호: 제 40-1846813 호, 2022.3.18)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주기는 3,10,15,20,30년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10세입니다. 또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갱신전)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70396호(2022.06.28~2023.06.2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sure.co.kr • 고객센터 : 1544-0114